

# KB STARS

# Magazines

제 13호

## 〈KOVO컵 리뷰〉

"사진으로 보는 KB스타즈"

## 〈구미 출정식 & 선수 소개〉

"우드리스, 이선규, 곽동혁 선수"

## 〈미라클 2세트〉

"끈끈함으로 승부했던 시즌 첫 경기"

### [ 1R KB경기안내 ]

110/18(화) vs 한국전력\_수원

10/22(토) vs 우리카드\_구미

10/27(목) vs ok저축은행\_구미

10/30(일) vs 대한항공\_인천

11/03(목) vs 삼성화재\_구미

11/08(화) vs 현대캐피탈\_천안



## KB손해보험스타즈배구단

# 사진으로 보는

**KB스타즈**

KOVO컵 편

## 조별리그 v s ok저축은행



새롭게 단장한 KB스타즈!

이적 후, 첫 선을 보인 이선규 선수와 곽동혁 선수 그리고 우드리스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3:0 완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

이 날, 우드리스 선수는 첫 경기에서 19득점을 하며 최고득점에 올랐고 이선규 선수는 블로킹 4개로 최고 블로킹을 기록했습니다.

## 조별리그 v s 한국전력



세터와의 호흡이 아쉬웠던 경기!

이 날 경기에서 권영민 선수와 양준식 선수가 교대로 경기하였지만 세터와 공격수와의 호흡이 보완이 필요해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우드리스 선수도 이날은 10득점으로 다소 아쉬웠던 경기력을 보여주며 0 : 3으로 패했습니다.

경기 후 우드리스 선수는 “한국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 조별리그 v s 현대캐피탈



준결승에 오르기 위해서 꼭 승리가 필요했던 경기! 어깨부상으로 인해 자주 출전하지 못했던 김요한 선수까지 동원하여 전력으로 맞섰습니다. 선수들은 포기하지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결과는 세트스코어 3:2 KB스타즈 승!!

## 준결승전 v s 우리카드



작년 KOVO컵 준결승전에서 만난 두 팀이 다시 준결승전 리매치 경기가 성사되었습니다.

작년의 패배에 대한 설욕일까요? KB스타즈는 1세트부터 집중력을 과시하며 앞서 3:1 승리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이날 4세트 경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강원 선수의 서브 연속 득점으로 이어진 승리는 달라진 KB스타즈 배구단의 집중력을 엿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 결승전 v s 한국전력



결승전이라는 부담감과 긴장감이 선수들에게 독이 되었는지 약간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며 세트스코어 1 : 3으로 준우승을 차지 했습니다. 컵대회를 통해 보름여 남은 정규리그를 어떻게 준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강성형 감독님은 “준우승이라는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6개월간의 장기레이스를 성공적으로 대비하여 ‘봄배구’에 당당히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 미라클 2세트, 끈끈함으로 승부했던 시즌 첫 경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 KOVO컵 결승전에서 아쉽게 쓴맛을 봐야 했던 KB손해보험 선수들이 또다시 V리그 개막전 상대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한국전력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하현용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경기 이탈로 인해 걱정스러웠지만 경기가 시작하기 무섭게 이수황 선수의 속공 득점, 깔끔한 서브와 센터 출신 우드리스 선수의 센터 안쪽으로 파고드는 공격 덕분에 그 걱정을 한숨 덜었습니다.

윙리시버의 자리는 황두연 선수가 100% 그 이상으로 메꿔주는 듯 했는데요, 엄청난 양의 리시브를 받으면서도 성공률은 거의 완벽에 가까워 수비 라인을 단단하게 받쳐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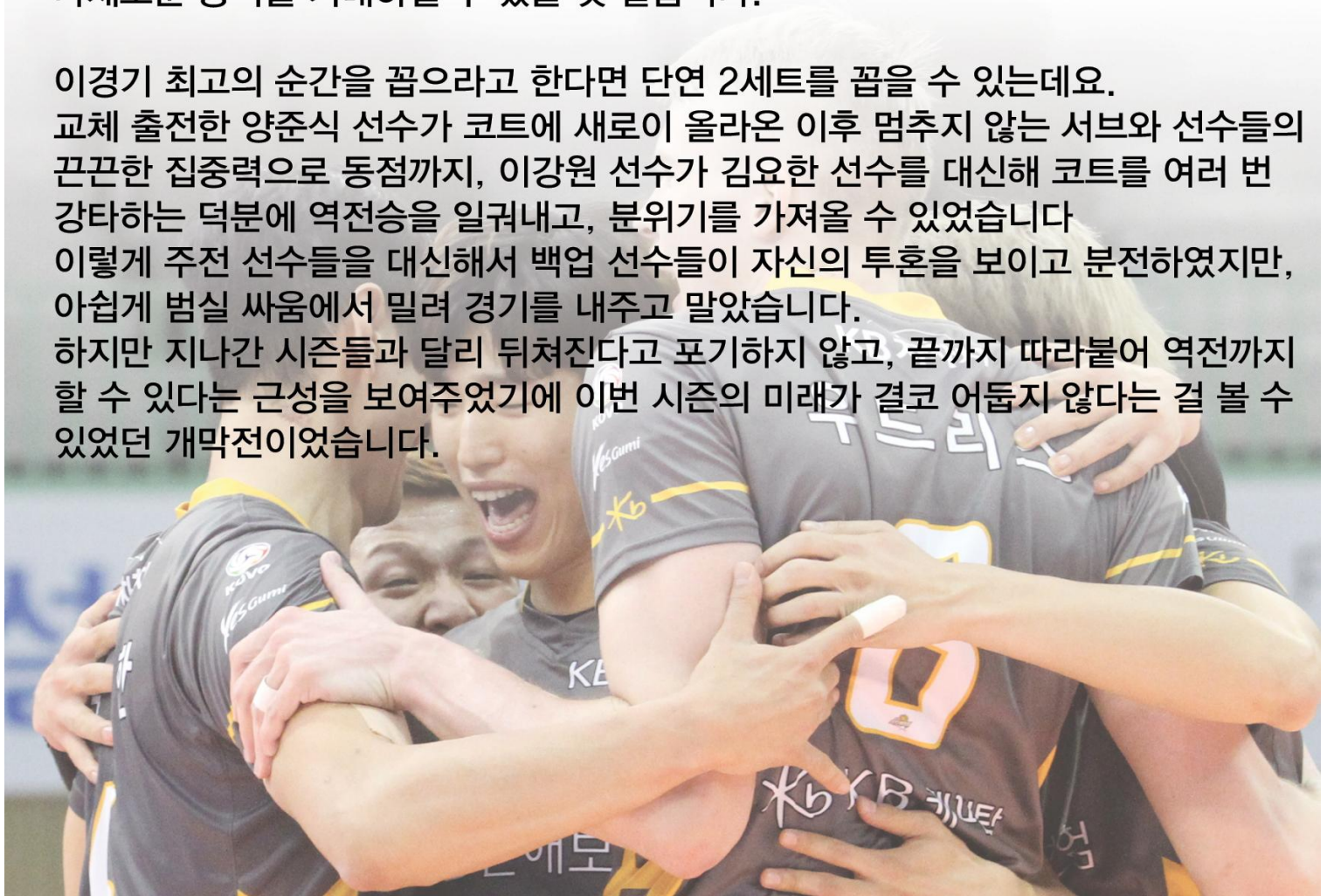
이번 시즌 트리아아웃 2순위로 새로 들어온 용병인 우드리스 선수도 서브에이스 2개를 섞어 높은 타점을 활용한 공격으로 수월하게 점수를 낼 수 있었습니다. 중앙으로 파고드는 공격으로 우리의 눈을 시원하게 씻어 주었는데요, 원래 센터 출신인 선수입니다! 앞으로 라이트뿐만이 아닌 다양한 코스에서의, 다채로운 공격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기 최고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2세트를 꼽을 수 있는데요.

교체 출전한 양준식 선수가 코트에 새로이 올라온 이후 멈추지 않는 서브와 선수들의 끈끈한 집중력으로 동점까지, 이강원 선수가 김요한 선수를 대신해 코트를 여러 번 강타하는 덕분에 역전승을 일궈내고,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전 선수들을 대신해서 백업 선수들이 자신의 투혼을 보이고 분전하였지만, 아쉽게 범실 싸움에서 밀려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즌들과 달리 뒤흔친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붙어 역전까지 할 수 있다는 근성을 보여주었기에 이번 시즌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었던 개막전이었습니다.



# KB스타즈

## 구미출정식

지난 10월 8일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은 구미역 야외광장에서 2016-2017 V-리그 시즌을 알리기 위해 출정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출정식은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진행되었고, 많은 구미 시민들과 팬들이 함께한 가운데 응원단의 화려한 공연을 시작으로 선수들이 차례대로 옥상에서 리프트를 타고 입장하였습니다.

무대 인터뷰에서 강성형 감독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모습 보여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장 권영민 선수 또한 이번 시즌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일 홈 개막전에서 우리카드와의 경기가 곧 시작합니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온 선수들이 이번 시즌 첫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팬 여러분의 힘찬 응원과 함성 부탁드립니다!!!



## Welcome, New Face! 팀의 새로운 얼굴들을 소개합니다

### No. 8 우드리스

트라이아웃 2순위! 최고의 높이!



#### 포지션

라이트 / 센터

#### 신체

212cm, 102kg

#### 타점

공격타점 381cm  
블로킹 352cm

#### 국적

벨라루스

### No. 9 이선규

명실상부 국가대표 베테랑 센터!



#### 포지션

센터

#### 신체

199cm, 90kg

#### 경력

현대캐피탈(03~12)



삼성화재(13~15)



KB손해보험

### No. 10 곽동혁

돌아온 친정팀, 안정된 리시브!



#### 포지션

리베로

#### 신체

178cm, 77kg

#### 경력

현대캐피탈(03~08)



한국전력(11~13)



삼성화재(14~15)



KB손해보험